

2006년 신년인사회 - 여성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하시는 일마다 모두 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작년하고 행사가 비슷한 거 같은데 사뭇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작년에는 마술하는 여성이 나와서 마술을 했는데, 그 분은 손끝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 이뤄내는 전문가라는 느낌을 제게 줬습니다. 작년 한 해 여성들이 이루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마술처럼 다 이뤄지라고 주문했는데, 많은 것들이 다 이뤄진 거 같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고하라면 자신 있게 보고 할 것이 있는데, 올해 여성계의 목표를 두세 개 제목으로 압축하라고 하면 작년보다는 궁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세웠던 목표 비슷한 수준의 압축된 목표가 뭐죠?

(청중 중에서 “지방선거”) 지방선거요? 네 지방선거에 대거 진출하시기 바랍니다.(박수)

여성의 사회진출 평가에서 2004년 68위에서 작년에는 59위로 올라갔습니다. 여성권한척도입니다. 이것도 축하할 만한 업적이라고 생각해서 적어왔지만 59위 가지고 자랑하기가 미안해서 보고하지 않았습니니다. 지방의회 대거 진출이 이뤄지면 여성권한척도가 대거 올라갈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많이 밀어 주세요”) 그리 하겠습니다. (박수) 지난해의 성취는 여러 가지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마 2004년 총선에

서 여성의원들이 많이 배출돼서 그게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도를 쟁취하는 투쟁에서 내실을 갖추는 노력으로

바로 여성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 부딪히고 있는 큰 문제, 예를 들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학력 간 임금 격차 등등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사회를 이끌어 가는 분들이 모두 나서서 하면 좋지만 사회적 대타협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회적 결속력을 키워주는 것이 방법이지만 취약한 사람들 중심의 협의체가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노사 교섭력도 대기업 중심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임금격차를 좁히는 노력은 깃발만 들었을 뿐이지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정치적으로 제도화하는 몇 가지는 간접적인 것입니다. 정부가 법제도로써 차별금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회적 교섭력이 아니라 정부의 교섭력입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이뤄지는 과정에서 결국은 교섭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권한척도도 교섭력이 훨씬 강화된 것에서 오는 힘인 거 같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그 동안 계층 등 여러 가지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단결해 왔습니다. 지역이나 정당의 차이를 넘어 여성계의 힘이 합쳐서 한 목소리로 외치고 합쳤기 때문에 작년에 성과를 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는 목표를 세울 게 없으면 내실을 갖추는 해로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은 제도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왔지만 작년까지 한 단계 넘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제도일 뿐 현실은 아닙니다. 제도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다듬어 왔던 제도의 내실을 다져오는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한편 작년, 올해 우리 사회적으로 새로운 의제가 제기되면서 여성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제는 미래에 대한 화두입니다. 미래를 얘기하면 제일 먼저 고령화 사회, 그리고 저출산 사회 말하게 되어 여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잠재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여성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생긴다는 긍정적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일을 하라는 요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해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라고 사회가 요구하고, 아이를 좀 낚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은근히 압력을 넣습니다.

전체적인 사회를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은 아니지만 남성들의 가사를 함께 하는 모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합창단 노래를 듣고 이 시기에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새로운 느낌이 들었고 컨셉이 좋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부담을 함께 안고 가면서도 새로운 성취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임기가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당장의 일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2030년, 2050년을 내다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준비는 좀 더 능동적인 느낌 있습니다. 대비라는 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을 대비라고 하면 2030년, 2050년에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대비하는 것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의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다 좋아지지도 않을 것이고 많은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위기의 한 고비를 넘겼으니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약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자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의 가치관이고 사회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정부로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고 일자리를 구하고 노후까지 대비하는 하나하나의 과정이 고통스럽고 불안한데, 이것을 그대로 둔 채로 아이를 낳자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준비된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여성들이 판단할 문제고 적어도 국가로서는 키우고 공부시키기가 겁이 나는 게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 낳아도 두렵지 않은 사회 만들겠다

올해에는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큰 것으로 아이를 낳아도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보육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육문제입니다. 사교육비도 줄여줘야 하고 입시 지옥이라는 지나치게 왜곡된 경쟁의 고통도 줄여주어야 합니다. 집이나 일자리, 노후, 그리고 일생을 책임지는 건강의 보장 등이 불안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2004년부터 중기 재정계획을 시행했습니다. 5년씩 미리 내다보고 예산을 짜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여성, 보육 예산도 크게 내다보고 5년씩 짜고 있습니다. 예산처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산처에서 총액을 부처별로 나눠주면 우선적으로 부처마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새로운, 멀리 내다보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2030년을 내다보는 재정계획의 기초를 거의 잡아 놓았습니다. 기획

예산처에서 올린 것을 연말에 읽어보니 제가 지금까지 본 미래재정 중에서 가장 우수한, 간명하고도 알찬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긴 어렵고 예산을 계획한 기획예산처에서 적절한 기회에 밝힐 것입니다.

2030년을 내다보는 계획 중에 여성들 몫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칙으로 풀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한국도 좋아질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5만 불 가는 나라가 되고, 삶의 질도 아주 높고 보육은 90% 정부의 책임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성부가 관장해야 하는 몫이 급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세를 확보하고, 제도를 확보하고, 그 제도의 내용을 채워가는 문화 만들어
나가야**

여러분들 왜 함께 모였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개인이 이룰 수 없고 함께 힘을 모아야 이룰 수 있습니다. 그저 힘이 아니고 세를 모아야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옳으니까 남성들이 어쩔 수 없이 한 발짝 물러서긴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뤄내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에서 여성들이 비약적 성장하고 하나씩 하나씩 각계약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를 결정하는 자리, 국회를 움직이는 자리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약진만 갖고는 안 됩니다. 전체가 함께 일정한 세를 가지고 해 나가며 일정한 영역을 장악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일거에 이

루고자 하는 사람은 혁명을 원합니다. 억압이 커야 혁명을 하는 것일 테고, 그것이 혁명이든 영역장악이든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비슷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노력이 뭘까요? 한국의 역사에서 세상을 바꾼 혁명가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뛰어난 성군이지만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연분 9등, 전분 6등 제도 등 조세 제도를 만드는 데 말 꺼낸 지 27년 만에 이뤘습니다. 제왕이지만 조세제도 하나 바꾸는데 27년 걸렸고, 결국은 세종대왕이 원하는 세상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정조대왕도 27년을 재위했는데, 많은 개혁을 이뤘다지만 끝나는 순간 함께 하는 사람들은 사회로 일망타진 당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결국 정조도 실패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이라도 만들었지만 한글이외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조광조, 대원군, 전봉준, 최제우, 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분들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500년을 지배한 혁명을 성공한 사람은 정도전입니다. 제도를 만들어서 율령체제, 관료제도, 대의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말로는 가치관입니다.

여러 가지 역사 중에서 율령제도를 정비하는 데 가장 유능한 사람은 중국의 진시황입니다. 율령과 관료제를 만들었지만 지도 이념을 만드는 데는 역사가 짧아서 실패했습니다. 결국 대의명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중국을 수 천 년 동안 지배해 온 것입니다. 어떤 왕조라도 그 지도 이념 아래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에서 확고한 지배논리를 가지고 확고한 제도를 세우고 관료제도를 만들어서 지배구조의 토대를 만든 게 정도전과 그 일당들입니다. 그리고 고려 말 사대부 계급들이 유학의 논리를 가지고 국가 지배체제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모두를 포괄하는 미래 비전과 전략 필요

결국 지금 여성들이 추진해가는 이 혁명의 과정에서 생각해보면 먼저 세를 확보하고, 제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제도의 내용을 채워가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체를 포괄하는 지도 이념을, 여성들만의 세계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남성을 포괄하는 전체 세계의 지도 이념, 비전과 전략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성들이 남성들과 맞서서 권리를 쟁취하는 것은 충분히 해왔고, 그러기에 아직도 권리를 놓고 대립적 관점에서 끊임없이 투쟁해야한다는 생각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서로 권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긴장과 전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권한을 확대를 위한 남성 여성이 아니라 모두를 포괄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 여성은 물론 남성들도 승복하지 않을 수 없는 가치 체계를 세우고 그 위에 비전과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젊은 남성들이 하는 걸 보면 머지않아 여성들이 한국을 장악할 거라고 생각돼 걱정됩니다. 아들을 보면 걱정됩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우리 아들 대에 지배권을 뺏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 지금 시기에 있어서의 지도 이념이라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인권, 자유, 평등 등이 핵심입니다. 너무 여성성에 매몰되어 보편적 가치에 무관심하거나 이탈하지 말고 모두가 추구하는 가치, 민주주의, 정의, 그리고 보편적 인권에 대해 함께 풀어가야 될 것입니다.

정도전 선생은 죽었습니다. 그것도 권력투쟁 과정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선 5백년은 그 지도이념을 토대로 신권사회, 사대부 사회

가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대원군 시대에 와서 달라지지만 결국 조선 5백년을 지배한 것은 이씨 왕가가 아니고 생육신, 사육신으로 이어지고 조광조로 이어지는 사대부 이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당장 접한 권력 기조의 승패가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도와 문화 이념 등을 바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저의 지루하게 드린 말씀이 조그만 참고라도 되면 좋겠습니다.